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중 편집인: 오대희 편집국장: 조선근

* 추수감사절 특별 메시지 *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신 성 중
(목사, 당회장)

1. 추수감사절의 유래

추수감사절은 1612년 플리머스(Plymouth)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1620년 11월 29일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에 상륙하였다. 그 해 겨울은 너무도 추워서 대략 반 정도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이듬해 봄, 인디언들에게서 얻은 밀과 옥수수를 20에이커 정도의 땅에 뿌렸고 마침 대풍이 들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 데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절기로 된 것은 워싱턴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이 국가공휴일로 지정한 공로 때문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구약시대의 3대 절기의 하나였던 초막절(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움)에서 시작된 것이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때가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둬들이는 절기였다.

2. 추수감사절의 오늘날의 의미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는 데 있다. 신자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는 하나

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롬 1:21).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데 있다. 오늘날 사는 우리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 둘째로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대인관계(對人關係)는 물론이고 대신관계(對神關係)에 있어서도 감사는 윤활유처럼 잘 굴러가게 한다. 셋째로 감사는 인생의 밝은 면을 보게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데 있다. 세상에는 어두운 면이 있지만 밝은 면도 있다. 어두운 면을 중심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은 분명히 고해(苦海)이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밝고 감사하게 보인다. 넷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최선의 방법이란 데 그 의미가 있다. 스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면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달빛도 필요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빛을 주실 것이다 다섯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라고 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3. 범사에 감사하려면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먹구름이 덮인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언제나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 신앙없이 는 검게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오색찬란한 빛깔로 변하는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셋째로 감사는 영 죽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죄문제 해결) 영생을 얻게 하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온다. 금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이러한 넘치는 감사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오늘은 추수 감사절

저녁찬양예배후 유치부의 감사절 축하행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해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절예배를 드린다. 이 예배시간에는 추수감사절 특별헌

금도 드린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자체내에서 축하행사를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금년 한해는 특별히 교회설립 40주년이

되는 해로 여러 면에서 감사할 일이 많은 해였다. 연초부터 40주년 기념행사로 각종 행사를 치루며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또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했던 한해였다.

봉사관 준공을 통해 대 사회봉사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충현올림픽을 통해 전 교인이 하나되어 그리스도안에서의 친교와 화목을 다졌다. 성경암송 및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다.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 충현선교 찬양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돌아왔다. 기독교 교육 학술 심포지움에서 기독교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가 지향할 바를 전국교회에 전하기도 했다. 40주년 설립 기념예배를 감사함 속에 드리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모든 선교사가 귀국하여 함께 선교보고대회를 가지며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도 했다. 부흥회, 93예수사랑 큰잔치 등으로 우리는 교회 배가와 전도에 대한 우리의 사명 등을 일깨우며 지금까지 앞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였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금년따라 유난히 많았던 대형사고에 냉해까지 겹쳐 사회적 분위기가 위축되었지만 새롭게 시작된 개혁으로 인해 정의로운 사회로의 기대감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던 한해였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으며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오늘 주일 낮예배는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저녁 찬양예배에서는 유치부에서 마련한 감사절 축하순서가 있다. 성경이야기·노래·극·찬양(어린이성가대, 교사) 등이 있을 예정이다.

에바다부 개교 5주년 기념

제2회 수화찬양제

교회학교 에바다부(부장 조인제 장로)는 개교 5주년을 맞으면서 11월 28일(주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제2회 수화찬양제를 갖는다.

청각장애자를 대상으로 모이는 에바다부는 학생들로부터 성인까지 다함께 모인다. 따라서 자체에서 이를 조정 오전 9시에는 학생반, 오후 1시에는 성인반 집회를 갖고 오전 11시에는 본당에서 수화통역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번 수화찬양제에는 각 분야별(초등, 중등, 고등, 제자)로 수화찬양과 성인들의 성극 뮤지컬, 다함께 하는 수화찬양과 말씀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관심과 이해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선교지에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연말과 성탄절이 다가옴에 따라 해외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보낼 성탄 선물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등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선교사님 및 그 가족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각 부서, 기관, 교구와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 : 1993년 11월 14일(주일) - 12월 5일(주일) 17:00까지

·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00 - 오후 6:00

· 접수장소 : 사무국(총무과)

· 접수종류 : 성탄선물, 성탄카드, 격려편지, 선교헌금 기타

(받으실 선교사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선교위원회 사무실 (Tel 552-8200(교) 357-8)

사 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우도 받지 못하거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충격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 나무의 조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가에 선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다고 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보통 1년 중 6월과 9월에 적어도 두 번 열매를 맺습니다. 혹 어떤 무화과나무는 12월에도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두 번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있고 세 번 열매를 맺는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신 것으로 보아서 유월절이 있는 4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아니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조건입니다.

첫째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인 점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전에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없다 해서 무화과(無花果)라고 부릅니다. 혹 어떤 나무는 잎과 함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잎이 막 나면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열매가 먼저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한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무화과의 계절은 아니었지만 잎이 것처럼 무성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열매가 있어야 마땅한데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고 불리울 만큼 주인이 따로 없고 누구나 따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길 가다가 시장한 사람이 따먹을 수 있는 것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하나의 무화과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있었고, 모든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있었고, 또 잎이 무성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화과나무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화과를,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금방 눈에 띄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주님은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현교회 모든 성도들은 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더 많은 입술의 열매인 찬양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나무의 운명

예수님께서 두 가지 종류의 배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주신 배움과 있고 또 하나는 행위로 주신 배움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위로 주신 배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3대 나무중의 하나입니다. 이 무화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유대교가 그러했듯이 이스라엘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겉만 무성했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교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경고하시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이 경고는 실제로 주후 70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로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열매를 잘 맺는 무화과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교회도, 사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열매맺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성전청결 사건과 연결되어진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신약시대에 있게 될 교회를 상징하며 또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충현강단



무화과나무의 저주 (마 21:12-17)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아,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헤쳐나가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신 성 중

<목사·당회장>

회적으로 훌륭하고 높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3.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열매없는 나무는 무가치하다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찬양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전도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지 못하면 무가치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무가치한 것은 없애버린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무가치한 나무, 즉 열매맺지 못하는 나무는 없애버립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배움을 드시면서 너희는 자라라.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잘려져서 결국 말라져 불에 던져져 태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맺지 않는 나무를 그냥 오래도록 두세지 않습니다. 제베버리십니다.

셋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이 없을 때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 때 합니

다.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신앙고백, 열매가 없는 신앙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경건의 능력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조화(造花)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양은 물론 심지어 냄새까지 생화와 흡사합니다. 그런데 조화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열매입니다. 조화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신자,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냄새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넷째로, 지금도 예수님은 사정하시다는 교훈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에게서 열매를 찾고

가정에서 열매를 찾고 교회에서도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시

장하다. 내게 열매를 다오'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할 때에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입니다.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불결같이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에 '반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산을 들리워서 바다에 던지우라 명령을 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면 이 모든 산이 없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산들을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문제 자체를 없애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산 속에 터널을 파고 그 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산을 피해서 가도록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산아,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헤쳐나가는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창고의 열쇠, 능력의 열쇠, 은혜의 열쇠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바로 저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명령을 하여서 이 모든 산들을 옮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쳐야 할 국민성 열 가지



우리 국민처럼 정점에 많은 국민도 드물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국민이다. 근면하고, 살의, 의지가 강하며 끈질기고, 인심 좋고, 머리가 좋다. 더욱이 종교성에 강하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도 많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줄을 설 줄 모른다. 이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히 천천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 불친절하다. 거짓말을 잘한다. 무슨 말을 하든 잘하지만 끝마무리는 적당하게 한다. 제면치레가 너무 많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다. 죄물과 선물을 구별하지 못한다. 감정 표현이 너무 노골적이다. 주인의식이 부족하다. 본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말을 많이 한다.

글 / 신 성 중 목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생활

조 동 원
(목사, 제9교구, 출판국지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며 생활이다. 이 감사는 어떤 모양이든 추수의 기쁨을 베풀을 수가 없다. 일용할 양식과 생존의 기쁨을 기본으로 하여 오곡백과의 추수와 마지막 때의 추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며 결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감사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 1993년도 추수감사절이 우리 발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11월 셋째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다. 거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1.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한다는 것은 큰 믿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주식이었다. 그들은 작은 환

난에도 참지 못했다. 불만이 커지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였다(민수기 16장).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야심에 찬 행동이었다.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처럼 자신의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라의 자손 중 250여명이나 되는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감사가 없음으로 믿는 성도요, 집사이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를 방황하며 영과 육 사이를 방황하거나 하늘의 기쁨과 세상의 쾌락 사이를 방황하며 불신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또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세상은 성도들이 결코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의 광야 생활은 영원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통과해야 할 길목이다. 이 길목이 시련과 방황의 길이라면 우리는 빨리 통과해야 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영이나 육이나 속히 결단하고 방향을 끝내야 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감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

2. 다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한해를 돌아보아야 한다. 돌아본다는 것은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본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활을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거를 보고 현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면서 그들은 먼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심에 대해 잊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오늘을 사는 유대인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지금도 출애굽 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사건을 과거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억하고 그곳에 모두 동참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우리로 이러한 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로 시대의 변화를 말한다.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최첨단 과학사회로 접어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추수감사를 농경문화 시대의 신앙표현으로만 보고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앙적 진리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없음같이 감사가 문화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의 표현은 신앙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우리 중헌의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감사를 위해서는 육에 속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며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감사를 실천하는 신앙은 이미 죄의 종으로 노예생활 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요, 광야같은 죄악 세상에서 방황을 이미 멈추고 불평과 원망대신 승리와 찬양의 차원으로 발전한 놀라운 신앙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여 맥추절을 지키라(신 16:9~12) 명하셨다. 그리고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칠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신 16:13-17) 명하셨다.

우리로 인생의 오랜 방황 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정착했다. 이제 말씀의 동산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1993년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

◆ 살며 생각하며 ◆



겨울이 오기 전에

양 선 자
(권사, 제1교구)

몇해 전에 어린 감나무를 사다가 마당 한켠에 심어 놓았는데, 올해 그 첫열매가 열렸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축복인듯, 가지마다 노오란 감들이 주렁주렁 매어 달렸다. 굳이 거름주고 보살피지 않았어도 대지가 그 자체에 품고 있는 무한한 양분으로 키워낸 생명의 결실이었다.

가을이 수확의 계절, 또는 결실의 계절이라는 말이 그냥 당연한 수식어가 아닌 내 손에 쥐어지는 알찬 열매로 확인해보는 감동이 있었다.

한곳에 뿌리내려 주어진대로 살아가는 한낱 식물도 때가 되면 당연한듯 열매를 맺는데 인생의 가을쯤 되는 길목에선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매달고 있는가 하고, 의심없이 살아온 나의 삶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해보게 한다.

감을 따던 날, 온 가족이 괜히 들떠 있었고, 사다리를 놓고 높이 올라가 감을 따는 큰 녀석에게 '애, 몽땅 다 따지는 말아라. 까치 밥은 남겨 줘야지' 하며 주위들은 풍월을 애기하는 나에게 '그건 까치 때문이 아니라 손이 안 닿아서 못따는 거예요' 하며 녀석이 우스갯 소리를 했다. 사다리를 붙들며 주시며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외손자가 염려스러우신지 아버지는 '조심해라. 애야 조심해라' 하며 연신 타이르셨다.

까치밥도 적당히 남겨두고 그래도 두어 접이 훨씬 넘게 거둬들인 감 무더기를 앞에 두고 있는 마음은 한없이 풍성했다. 동생네랑, 조카네 또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우리 집 마당에서 딴거야' 하고 자랑도 실컷 했다.

그 감나무 아래 우리 식구들이 '할아버지 자리'라고 부르는 방석처럼 평평한 돌이 있다. 새벽 다섯시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곳에 나와 앉으셔서 가쁜 숨을 헐겁게 내쉬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늦가를 쌀쌀한 새벽 미명에 그곳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조바심이 나고 추위를 타듯 몸이 움추러

든다.

여든여섯이라는 연세의, 그러나 참으로 건강하시던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후두암 진단을 받으시고 우리 집으로 오시던 날, 생각없이 건다가 막다른 골목에 막닥뜨린 듯 어처구니없이 당황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너무 연로하셔서 아무런 치료도 해드릴 수 없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그 소진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식으로 차마 견딜 수 없는 가슴 아픔 때문에, 지난 두어 달 동안이 마치 이삼년이나 되는 듯 건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는 복병처럼 튀어나온 질병과 그것이 종내 어느날엔가 마주보아야 하는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확연히 아시고 받아들여이시는 모습이였다. 그것은 체념이나 절

망감이 아닌, 평온하고 단단한 그 무엇을 느끼게 했다.

한 계단씩 차곡차곡 올라와 이제 마지막 정상을 마악 밟으려는 완성의 순간처럼, 또는 한 겨울 잎을 다 떨고 나신으로 서 있기 위해 모든 생명력을 단단한 열매로 집결시킨 감나무처럼, 빛나는 순간을 맞고 계시는듯한 모습이다.

평생을 한결같이 새벽제단을 쌓으시던 그 습관대로 이곳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그 장소를 마련하신 나의 아버지.

완전히 하얗게 센 머리를 깊이 숙이시고 두손을 무릎에서 맞잡고, 늦가를 새벽에 한 시간여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은 웬지 목이 매어오게 하고 또 눈이부신 느낌을 준다. 머잖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는 날이 오겠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리라.

그리고 한편으로 내 아이들이 먼 훗날, 나를 어떤 모습으로 떠올릴까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해본다. 나이 오십을 훨씬 넘기고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손에 쥐고 싶은 것들이 많아 매일매일 허둥대며 사는 나에게 이제 버리고, 관망하며, 돌보며, 마무리하며 살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곧 다가올 겨울 앞에 단단한 결실로 찾아온 감나무와 그 아래 야곱의 돌 베개인 듯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담담히 인생의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이 가을, 하나님이 내게 내려주신 축복이며 교훈이심을 깊이 깨닫는다.

이제 아버지가 기도하시던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되어야 하리라. 하늘로 향한 사다리가 보이는 곳 그 축복의 자리를, 겨울이 오기전에 아버지는 오늘도 내게 저렇듯 경건한 몸짓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세례식, 성찬식 거행

지난 11월 12일(금)과 14일(주일)에



금년 들어 마지막으로 거행된 세례식이 지난 11월 12일(금) 오후 7시부터 갈릴리홀에서 거행됐다. 수제자들과 축하객들로 갈릴리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세례식에는 학습자 189명, 세례자 215명, 유아세례자 83명, 입교자 30명, 개종자 18명 등이 나왔다. 이중 남자는 242명, 여자 293명이다.

이날 세례식에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와 윤용규, 김성운, 최인근, 이조웅, 임성환, 김양홍, 홍창민 부목사가 함께 집례하였다. 이날 세례식에는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

해 온 사람들로 갈릴리홀이 붐볐는데 참석자들은 축하 꽃다발과 선물 등을 준비해 와서 자신들이 인도한 사람들이 학습·세례 받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4일 주일에는 I, II, III, IV부 예배시 성찬식을 갖고 온 교우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앞으로 더욱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결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현 제2동산 묘지조성 준공감사에배

지난 11월 18일(화) 오전 11시 충현동산 신단지에서 충현제2동산 준공감사에배가 드려졌다. 봉서위원장 박치민 장로의 사제, 노광현 장로의 기도, 오정현 장로의 경과보고 후에 당회장 신성종 목사가 '천국과 매장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김창안 원로목사가 축도를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구단지 또한 새로 조성된 묘지에 맞추어 정리해서 한층 정갈해지고 천열감이 생기는 동안 모습을 갖추게 됐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사역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소서.
· 김창안 목사님 : 22일(월) 성남분당지역 93결실 축복대성회 인도(성남실내 체육관), 23일(화) 목회자영성훈련 세미나 특강(여의도 순복음 교회)
- 신성종 목사님 : 23일(화) 현대전자 기독교신우회 설교(이천, 현대전자 체육관), 25일(목) 정부 제2종합청사 직장선교 연합회 추수감사예배 설교(남부순복음교회 과천성전)
2.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4. 새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내려 주소서.
5.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각 교구별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

각 교구별 새신자 환영모임 및 연말 친교모임이 한창이다. 지난 10월 17일 예수사랑 큰잔치를 기해서 새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교구별로 따뜻하게 환영하는 모임이 연말과 겹쳐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으로 열리고 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교구식구들 간의 친교와 교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새신자들은 평소 애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환영해주는 환

영모임이기에 한결 부담이 적고 마음 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한다.

- 제3교구 모임 : 11월 23일(화) 오후 7시 만나홀(선교관 지하 1층)
- 제15교구 모임 : 11월 30일(화) 오후 6시 30분 만나홀(선교관 지하 1층)
- 제5교구 모임 : 12월 5일(주일) 오후 2시 20분 아멘홀(선교관 지하 2층)

당회장 신성종 목사

설교집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 출간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설교집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가 도서출판 하나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도서출판 하나가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그동안의 설교들을 정리하여 주제별로 묶어 출판하는 '신성종 성경탐험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성경속의 인물들 -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등 성경상의 인물들을 주



제로 설교한 설교 27편이 수록되어 있다. 교회 테이프 보급소에서 판매(주일 제외)한다. 신국판, 244페이지, 5,000원

가브리엘찬양대 미혼자 모임

가브리엘 찬양대는 오는 27일(토) 오후 5시~7시 배후라기홀(지하 2층 식당)에서 미혼자 초청잔치를 벌인다. 찬양대 배가운동 차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미혼자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작원사진 촬영

제 날짜에 못 찍으신 분들도 평일(수,목,금)에 오셔서 꼭 찍으시길 바랍니다.

- 오늘(11월 21일) 촬영교구 : 제21교구, 제22교구, 제23교구
- 촬영시간 : 주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시

감 사

김 운 섭 (집사, 제15교구)

아글 골짜기 해골처럼
거리로 달리는 장마른 낙엽
늦가을과 초겨울의 문턱에
벌써 열한달
초라한 내 모습
하나님앞에 머리 조아리며
감사대선 욕심으로
급실거리던 더러운 욕심
나의 마음 정결케 하소서
주님 앞에 빈 그릇으로 서지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비굴한 노예되어
주님 모르게 감추인 재물
우리는 가면(假面)의 웃음속에
발고광 갈아엎듯
쟁기질하며 숨기던 탐욕
주님 앞에 뒤돌아 서며
감사할 줄 모르던 자신
무례함 용서하소서
검소와 검소한 마음 하나로 묶어
나의 수고 바치는 감사되게 하옵소서

황무했던 마음 에덴같이 하신 주님
지금까지 붙잡아 인도하신 사랑
열한달을 매쳐옵소서
구제하 중에 생활비 전부 바친 과부
깨끗한 그릇에 예물담아
여호와께 드린 이스라엘 재손
나, 본받게 하소서
썩도 열매도 숨김없이
뿌려달라 주시는 하나님
정성껏 바치는 감사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땅의 결실
감사의 달 맞이한 살일월
태고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재물
지금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하루로부터 받은 은총
감사 감사 또 감사
알알이 풍성한 이삭만큼
한뼉 한뼉 장담아 드리면
무지개로 약속한 열한달
물결의 양보다 바치는 정성되게 하옵소서.